

실의 연계관계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Organization of Korean Detached Houses by the Analyses of Connecting Methods between Rooms

전경화 / Jeon, Kyoung-Hwa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Korean houses designed by architects. It i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of spatial organization of houses designed since 1970. The variety and regularity of organization existed at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n houses are analysed through typological theory. In this study, the connecting methods between rooms appeared in the plans of 190 detached houses are analysed and classified chronologically. The connecting methods of space between L-D K, between living room and master bedroom are analysed. And the methods of spatial division inside of master bedroom are also analyse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it is clear tha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architects' houses turns its direction from the concept of 'unifying and clustering' to that of 'dividing and segregating'. In contrast to the 70s, there shows a strong diversity in the connecting methods after the 80s with the adaptation of the 'language of linear plan' using many forms of intermediary elements between spaces. This result would be relative to the changing trend of design philosophy and the changing tend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space of house.

키워드 : 실의 연계관계, 단독주택, 공간구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근대적인 주택이 도입되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건축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계획된 주택 즉 소위 작품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을 이렇게 설정하여 놓고 주택들이 가지는 공간구성상의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공간구성의 체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려는 것이 이 연구가 추구하는 포괄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에 담긴 건축가들의 계획개념과 건축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면서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유발되었으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부딪치면서 주거문화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근대화와 도시

화의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가졌던 주거공간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의 전통적 주거양식에서 서구적 생활양식에서의 변화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내용의 통합과 이에 따른 공간 개념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목적 내에서 이 연구가 취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에서 파악되는 각 실의 연계관계를 개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택의 공간구조의 특성과 공간구성상의 변화의 특성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각 실의 관계와 기능적 관련성, 주요한 생활공간의 위상적인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1) 여기서 말하는 공간구조는 단지 주거평면의 '모양'이 아닌 공간의 관계를 포함한 '공간의 구성체계를 의미한다. 즉 주거의 공간구조란 주거의 '물리적 형태와 그 속에서 발견되는 공간질서 및 실의 성격과 관계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R. P. Weber, "On the Structure and Order of Perceived Architectural Space," Intrim Report No.34, Center for Environmental Research, 1982, p.9.

정희원, 신구대학 실내건축과 강사, 경희대 박사과정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국내에 발표된 건축가에 의한 단독주택을 그 분석대상의 범위로 하였다. 이 연구는 그 분석 대상을 ①국내 건축가에 의해 설계, 시공된 ②단독주택으로 한정하고, ③구조법에 관계없이 ④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70년대 이후 ⑤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사례들로 규정한다. 분석대상으로서의 주택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1970년 이후 1997년에 이르기까지 일반 건축전문지에 2회 이상 게재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의 건축가에 의해 실제로 시공되어진 것으로 지역적, 시대적 범위를 한정하였다.²⁾ 이상의 기준에 따라 추출된 사례는 70년대의 48개, 80년대의 66개 사례, 그리고 90년대의 76개 사례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례수 190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의 공간구성상의 특징과 실의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³⁾ 유형학적 방법이란 “건축의 형태 또는 공간구성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기본적인 성격 또는 구성원리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분석방법”으로 규정한다.⁴⁾ 여기서는 주택의 평면에서 파악되는 실의 연계관계를 도상적으로 분류한 후 거기서 파악된 동일한 분석항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대의 주거평면들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그 속에서 발견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거평면에서 파악되는 경향을 분명하게 밝혀려고 하는 것이다. 유형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이 연구의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택의 각 공간을 기능에 의해서 분할하고 분할된 공간상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도식화시킨다. 이때 각 공간들이 지니는 크기의 차이는 실제 공간의 규모차를 배제하고 상대성을 갖게 한다.

②각 공간이 갖는 기능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주요한 기능에 따라서 대표성을 부여한다.

③분석대상이 되는 주요한 실을 중심으로 하여 개개의 단독공간은 동선상의 시퀀스에 따라서 배열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배열상의 특성을 분류한다.

④여기서는 단위공간의 동선상의 시퀀스를 거실·식당·부엌, 거실·안방, 그리고 안방 내부의 공간적 배열로 구분한 후 이를 연결의 특징에 따라서 유형화한다. 또한 각 시대별로 파악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파악한다.

2. 주택에서 공간구성의 의미와 주택평면과의 상관성

건축에 있어서 공간구성의 의미는 건축가가 공간을 형성하고 조직할 때 공간요소의 성질들 즉 각각의 크기와 모양, 사용자와 기능, 인간의 움직임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공간요소들을 배열함을 뜻한다.⁵⁾ 따라서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간구성은 공간의 확장, 수축, 유동, 정지 등 공간적 표현의 매체로서, 인간의 감정적 속성과 관련된 역동적 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⁶⁾ 또한, 공간구성은 한 시대의 문화적·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문화적 결과물로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공간구성이 같은 이러한 속성은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 주택설계에서 공간단위인 각각의 실에서부터 그것들의 조직체계는 각각의 거주형태에 있어서 시대성과 역사성과 결부되어지며, 거주자 자신의 요구와 특정문화의 형성에 선행하는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생활방식, 관습, 재료, 개인적 취향 등 모든 요소가 관련되는데, 이들 요소를 개인적 의도에 따라 결합시키는 것은 설계자이지만, 주택 공간구성의 구조는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어 공간 단위들간에 또 다른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공간의 조합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유형이 갖는 구조적 특성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회의 집단적 의도와 가치관과 같은 사회구조와 결부되는 동질성도 갖는 것이다.

주거의 공간구성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상의 차이가 주거양식의 차이로 파악된다. 즉 주거의 공간구조는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 즉 생활방식 및 행태의 차이와 주거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구분적으로 파악된다. 이를 문화·행태적인 구조에서 보면 좀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행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의 공간구성은 세가지의 서로 상보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차별화된다. 즉, 첫째가 주거의 주체인 인간과 ‘인간의 행위’이고, 둘째가 생활의 추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규범, 관습, 세계관, 의미체계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이고, 셋째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제시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인 ‘물리적 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⁷⁾ 이상의 차이가 주거형태 및 공간구성의 차이이며, 이것은 바로 문화의 차이를 의미한다.

주택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행

2) 여기서의 건축전문지는 「공간」, 「건축사」, 「건축가」, 「건축과 환경」, 「건축문화」, 「플러스」, 「이상건축」 등이다.

3)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형 및 유형학의 개념은 손세관 교수의 규정에 따랐다. 그는 주거유형의 의미를 “인간의 주택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또는 구성적인 원리”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연화당 미술신서 67, 1993, 연화당, p.14.

4) A. Cloug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IT Press: Cambridge, Mass., 1987, pp.37-41.

5) P. K. Mess, *Element of Architecture*, New York: Reinhold van Nostrand, 1993, pp.145-7.

6) E. D. K. Ching, *Architecture: Form, Space & Order* (건축의 형태·공간, 도서출판 휴머니티, 1985), p.173.

7) 아르노 라포르트(A. Rapoport)는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1) 자연환경의 차이 2) 기후, 지형 등 2) 생활양식의 차이 3) 가족제도, 의례행식의 차이 등 3) 가치관의 차이 이상, 세계관, 가치관 4) 사회제도나 규범상의 차이 5) 제도, 규범 5) 기술 및 재료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Rapoport, *Arm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1969 참조.

위가 어떠한 성격이나 내용을 갖는가에 따라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된 공간을 구역(zone)이라고 하며, 공간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구역구분(zoning)이라 한다. 구역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서 동적·정적 구역, 공적·사적 구역, 그리고 주간·야간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에 해당하는 여러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⁸⁾

이러한 공간들을 생활방식에 대응시켜 조직화함으로써 주거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각 공간들을 결합시켜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구역에 따라서 각 공간들을 조합하는 방법과 동선에 따라서 공간을 집합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구역에 따르는 방법은 각 공간들을 기능에 따라 공통된 성격을 갖는 공간끼리 집합시킨 후, 각 그룹별로 제반조건에 맞는 위치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한편, 동선에 따르는 방법은 사람이나 물건들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생활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러한 이동들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공간과 공간의 결합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선에 따르는 방법에서는 동선이 짧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근자에 와서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간끼리는 근접시키고 이질적인 성격의 동선은 교차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공간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평면이다. 주거의 평면은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공간의 관계와 공간간의 연결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주거의 유형이나 형식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즉 주택의 평면에는 '물리적 구조'와 '공간구조'가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동시에 주거에 있어서 평면의 의미는 단지 공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을 대하는 사용자의 인식도 암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실이름은 사용자의 이름이나 위치를 중심으로 붙여지고(예: 사랑방, 안방 등), 서양에서는 '공간의 기능별'로(예: 침실, 거실 등) 불리어져 왔는데, 이는 공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인식의 차이는 공간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공간의 위치에 중요성을 주는데 비해 공간의 기능은 다기능적이면서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동시에 실과 채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전통주택의 경우 식구의 증가는 곧 실과 채의 부가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식 주택평면의 경우는 각 공간이 독립된기능을 가지게 되고 실의 구분이 분명한 구조로서 실내의 공간배분의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주택공간구성의 특성 및 그 변화의 양상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의 변화의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되었다.¹⁰⁾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 파악된 우리나라 주택공간구성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특성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에서 파악되는 두드러지는 공간구성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각 기능에 따른 주택내부에서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다. 즉 서구식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일기능을 위한 단일목적 공간으로 계획하려는 방식이 전반적인 변화의 성향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점차 거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드는가 하면 식사공간도 별도의 식당으로 계획되고 주방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주택보다는 건축가가 계획한 소위 작가주택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작가주택이 일반주택보다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간에도 개별화의 추세가 촉진되면서 프라이머시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주택에서는 공용공간이 단일기능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 세부적인 기능에 맞도록 다시 그 공간이 분화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방과 부엌공간의 분화는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안방을 보면, 건축가가 계획한 주택에서도 일반주택에서와 같이 하나의 단일한 방으로 계획된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공간으로는 안방이 수용해야 하는 취침이나 접객, 가족간의 단란 등의 기능이 복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안방의 기능을 다시 세분해서 별도의 침실공간을 만드는 등 안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간분화가 전개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안방과 침실의 공간적 분화는 안방을 침실만의 기능으로 보지않고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념인 안방을 가족단란의 공간으로 보는 개념상의 고정화 현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간적 기능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안방의 대부분의 생활내용은 시대별로 큰 변화없이 일상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온돌구조의 좌식생활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에서 안방의 공간적인 분화는 전통주택에서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작가주택에 정착된 새로운 공간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10)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고인용, 한국 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②임장복,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③최혜진, 한국 건축가에 의한 단독주택 형태구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8)이경희외, *주택학 概說*, 문운당, 1993, pp.224-225.

9)B. Hillier는 인간의 관계나 사회조직이 공간의 배열을 만들어 결국 공간구조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B. Hillier and J.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84, pp.242-268.

또한 부엌공간의 분화도 주요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주택에서 부엌은 중요하게는 난방의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근대화이후 부엌에서의 난방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부엌의 평면구성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안방+부엌이라는 전통적인 주택의 중추적인 개념이 거실의 기능확대와 더불어서 부엌의 위치가 주택의 중심부로 전이하게 되면서 공간적으로 개방화되는 동시에 중요한 생활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70년대의 작품주택은 보통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사일을 돌볼 수 있는 가정부가 필요함에 따라 가정부실을 부엌 옆에 설계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은 다용도실 혹은 가사실 등이 별도로 공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정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파출부 제도가 보편화 됨에 따라 가정부실의 계획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며, 세탁이나 건조 등 일상의 가사활동을 위한 다용도실의 기능이 강조되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엌 공간의 분화와 더불어서 식사공간의 별도 구획도 커다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식사공간은 부엌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나 아니면 거실과 한 공간을 이루도록 하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LD형과 DK형의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초까지의 기간에는 DK형식 보다는 LD형식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7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말까지는 DK형식이 오히려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었고, 80년대에 와서는 LD형과 DK형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은 공간구성의 경향은 초기에는 서구적 생활방식을 내세운 LD형과 같은 형식이 건축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으나 70년대 중반부터는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생활경험을 근거로 요구조건이 변모하였고, 건축가들도 이에 동조하여서 DK형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당공간의 계획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다루어졌던 것이 안방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건축가들의 안방에 대한 해석은 서구적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는 침침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시켜 보려는 의도로서 나타났었다. 따라서 안방을 2층에 두는 경우가 60년대 말과 70년대 사이에 많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방을 생활공간인 거실과 분리하여 2층에 두게 되는 것은 서구의 주택에서는 일상화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주택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 또는 '기능적 사고' 라는 서구적인 생활지향의 경향이 70년을 전후로 해서 팽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생활의 근대화를 이러한 서구적 이미지의 모방에서 찾으려는 건축가들의 의도는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 상상이동의 경향에 따른 일반주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래의 주거생활 양식을 유지해온 주거공간이 우리의 생활에 더욱 적합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주택에서 안방의 위치는

11) 임창복,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9, p.124

12) 임창복, 앞의 논문, p.122

거실과 연계하여 자리하는 경향으로 점차 정착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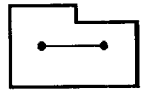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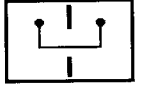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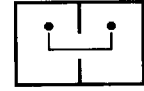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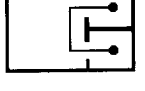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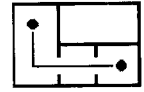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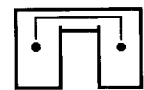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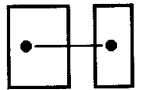
4. 우리나라 주택의 실의 연계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주택 내부에서 각 공간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 변화의 경향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위상학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의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의 연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상되는 실의 연계관계 유형을 기존의 주택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류와 분석의 잣대로 설정하였다. 말하자면, 하나의 분석체계를 유형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해 놓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의 연계의 양상을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의 연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분석의 기본적인 잣대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말하자면 <표 1>은 주택내에서 공간의 연계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체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간연계의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분석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분류의 방식을 달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파악한 실의 연계관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 1) 주택에 있어서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
- 2) 주택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연계관계
- 3) 주택의 주실인 안방의 내부에서의 공간분화의 정도

<표 1> 주택에서 파악되는 실의 연계관계의 제반유형

■형식1 : 직접연계	■형식2 : 간이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공간 사이에 단차나 Arch가 존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문, 커튼 등에 의한 공간의 소극적 분리 • 양공간이 연계되면서 유리문 등이 생김때
■형식3 : 벽을 사이에 두고 개구부로 인접	■형식4 : 홀을 통한 인접(복도, 홀, 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공간 사이에 벽이 생기고 문을 통해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실이 나란히 인접하지만 외부 홀·복도 등을 경유하는 경우
■형식5 : 다른 실을 경유하는 분리	■형식6 : 내부 계단을 통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거실, 홀 등을 지나서 연결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층으로 완전 분리
■형식7 : 복도를 통한 분리	■형식8 : 외부공간으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의 복도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 • 계단에 의한 연계된 구성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실이 외부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공간 형식

4.1.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

우선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 주택내에서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3공간의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①완전개방형 ②개방형 ③간접개방형 ④분리형 ⑤완전분리형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각각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2 참조>.

1)완전개방형: a)거실-식당-부엌이 완전하게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공간을 구분하는 일체의 칸막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b)거실-식당이 개방되고 식당-부엌이 공간적으로 연결하지만 간이칸막이 등에 의해서 다소의 구분을 이루는 경우로 구분된다.

2)개방형: a)거실과 식당이 공간적으로 연결하지만 간이칸막이 등에 의해서 다소 구분되고 식당과 부엌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경우와, b) 거실과 식당이 간이칸막이 등에 의해서 구분되고 식당과 부엌이 벽체로 분리된 경우로 구분된다.

3)간접개방형: a)거실과 식당이 서로 연결되지만 벽체에 의해서 구분되고 식당과 부엌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경우와, b)거실-식당-부엌이 서로 연결하면서 벽체에 의해서 분리된 경우로 구분된다.

4)분리형: a)거실과 식당이 다른 공간을 경유하게 배열되어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반면 식당과 거실이 통합된 경우와, b)거실과 식당이 다른 공간을 경유하게 완전히 분리되고 식당과 부엌이 벽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표 2> 거실-식당-부엌 연계관계의 유형 및 빈도수

구분	공간구성의 방식	공간구성의 특성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완전개방형	aa	LDK가 공간적 구획 없이 완전한 구조	1 (2%)	9 (14%)	10 (13%)	20 (11%)
	ac	LD가 통합되고 K가 벽체로 분리됨.	10 (20%)	12 (18%)	7 (9%)	29 (15%)
개방형	ba	LD가 간접 분리 되고 DK가 통합됨.	0 (0%)	5 (7%)	1 (1%)	7 (2%)
	bc	LD가 간접 분리 되고 DK가 벽체로 구분됨.	6 (13%)	5 (3%)	2 (2%)	13 (7%)
간접개방형	ca	LD가 벽체에 의해서 분리되고 DK는 통합됨.	2 (4%)	3 (4%)	8 (11%)	13 (7%)
	cb	LDK가 벽체에 의해서 각각 분리됨.	5 (10%)	0 (0%)	0 (0%)	5 (3%)
완전분리형	ea	LD가 공간을 두고 분리되고 DK가 개방됨.	2 (4%)	2 (3%)	11 (14%)	15 (7%)
	ec	LD가 공간을 두고 분리되고 DK가 벽체로 분리됨.	9 (19%)	7 (11%)	4 (5%)	21 (11%)
완전분리형	ga	LD가 복도로서 완전분리되고 DK가 통합됨.	0 (0%)	4 (6%)	11 (14%)	15 (8%)
	gc	LD가 복도로서 완전분리되고 DK가 벽체로 분리됨.	1 (2%)	4 (6%)	9 (12%)	14 (7%)

5)완전분리형: a)거실과 식당이 복도 등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식당과 부엌이 통합된 경우와, b)거실과 식당이 복도 등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식당과 부엌이 벽체에 의해서 구분된 경우로 나

뉘진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우리나라 작가주택에 있어서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연계 방식은 '완전개방형'으로 파악되었다. '완전개방형'의 공간구성은 전체 190개의 사례중에서 49개의 사례로 파악되어서 26%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도 거실과 식당이 공간적으로 완전히 통합되고 식당과 부엌이 벽체에 의해서 분리된 경우가 전체의 1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작가주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공간구성방식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완전개방형'의 공간구성중에서 LDK가 완전하게 통합된 경우는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중에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LD가 통합되고 부엌이 분리된 경우는 70년대에 많은 사례를 보이다가 90년대에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개방형'의 공간구성은 전체 사례중에서 약 11%정도의 빈도수를 보이는데, 그리 일반화된 공간구성으로는 파악되지는 않는다. '간접개방형'의 경우도 전체의 10%를 보여서 개방형과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분리형' 공간구성의 경우는 전체의 18%를 보여주어서 '완전개방형'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말하자면, 거실과 식당을 분리하고 식당과 부엌을 공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일반화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완전분리형'의 경우 전체의 1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분리형' 공간구성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구성으로 파악되었다. '완전분리형' 공간구성의 경우는 70년대의 경우 거의 보이지 않다가 90년대로 들어오면서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80년대이후 주택공간에서 거실과 식당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된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주택의 외관 형식이 T자, L자로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서의 논의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는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70년대에는 공간적인 개방화 또는 통합화의 양상을 강하게 보이다가 8,90년대로 진입하면서 공간적인 분리의 현상이 점차 현저해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4.2. 거실-안방의 연계관계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거실과 안방의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 참조>.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 전통적으로 거실 용도인 '마루'와 안방은 공간적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³⁾ 이러한 전통적인 거실-안방의 인접관계는 70년대 작가주택의 경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70년대의 경우 거실-안방의 직접연계방식은 전체 사례에서 38%를 차지하여 가장 일반적인 실의 연계방식으로 나타났

13)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원형적인 형태는 방-마루-안방-부엌의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나라 전통주택에서 발견되는 공간구성으로서, 1960년대의 주택에 전이되어서 우리나라 주택공간구성의 원형(archetype)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고인룡,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5, p.150.

다. 말하자면, 70년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거실-안방의 연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어 유지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70년대의 경우 거실과 안방이 복도나 홀을 경유해서 연결되는 방식이 25%의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빈도수가 그리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하자면, 70년대의 경우 거실-안방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고 동시에 거실-안방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강한 경향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8,90년대로 진이하면서 전통적인 거실-안방의 연계관계는 점차 줄어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90년대의 경우 거실-안방의 직접연계방식은 전체의 14%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 90년대의 경우 홀이나 복도를 경유해서 두 공간이 분리되는 구성방식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그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실과 안방의 연계관계에 있어서 또다른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안방과 거실이 1, 2층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점차 증대한다는 것이다. 안방과 거실이 각각 다른 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70년대의 경우 13%를 차지하였던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실과 안방이 층별로 구분되는 현상이 증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향으로 파악되는 현상이다.

시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우리나라 작가주택에서 파악되는 거실-안방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거실-안방이 복도나 홀을 사이에 두고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3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거실-안방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이 28%로 그 다음의 빈도를 보이고, 거실-안방이 층으로 완전 분리되는 경우가 20%로서

그 다음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작가주택의 경우 거실-안방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방식이 가장 현저한 경향이면서 동시에 점차 증대하는 경향이라는 것이고, 과거의 전통적인 직접연계의 방식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잔존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안방 공간분화의 유형 및 빈도수

공간구성의 방식	공간구성의 특성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계
A	특별한 공간적 구획 없이 일체화된 구성을 취하는 형식	24 (50%)	17 (26%)	25 (33%)	66 (36%)
B	방의 한쪽 측면에 욕실이 부가된 형식	1 (2%)	14 (21%)	13 (17%)	28 (15%)
C	방이 공간적으로 양분되어 안쪽에 전용침실이 위치하는 형식	2 (4%)	2 (3%)	2 (3%)	6 (3%)
D	방의 측면에 공간적인 구획이 생겨서 이곳에 드레스룸과 욕실이 위치하는 형식	9 (20%)	8 (12%)	19 (25%)	36 (19%)
E	방의 측면에 드레스룸이 부가되는 형식	1 (2%)	0 (0%)	1 (1%)	2 (1%)
F	안방과 전용침실이 양쪽에 위치하고, 중앙에 욕실과 드레스룸이 위치하는 형식	1 (2%)	4 (6%)	6 (8%)	11 (6%)
G	안방과 전용침실로 양분되고, 전용침실에 욕실이 부가되는 형식	3 (6%)	2 (3%)	6 (8%)	11 (6%)
H	안방과 전용침실로 양분되고, 전용침실에 욕실과 드레스룸이 부가된 형식	7 (15%)	15 (23%)	6 (8%)	28 (15%)
I	서재 등 다른기능의 공간을 경유해서 안방으로 전입하고, 안방에 욕실과 드레스룸이 부가된 형식	8 (0%)	4 (6%)	1 (1%)	5 (2%)

<표 3> 거실-안방 연계관계의 유형 및 빈도수

공간구성의 방식	특 징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계
A	벽을 사이에 두고 직접 연결 거구부로 분리	18 (38%)	21 (32%)	14 (18%)	53 (28%)
B	벽을 사이에 두고 직접 연결 복도/홀로 연계	7 (14%)	8 (11%)	8 (11%)	22 (12%)
C	벽을 사이에 두고 직접 연결 다른 기능의 실(복도, 홀을 제외)을 통해서 연계				
D	벽을 사이에 두고 직접 연결 두개 이상의 실을 경유하여 연계		1 (1%)		1 (0.5%)
E	공간적으로 분리(1단분리) 복도/홀을 통해서 연계	12 (25%)	17 (26%)	32 (42%)	61 (32%)
F	공간적으로 분리(2단분리) 다른 공간과 복도/홀을 통해서 연계(2개의 공간을 통해서 연계) 홀복도/복도-공간/홀-공간	3 (6%)	6 (9%)	3 (3%)	12 (6%)
G	공간적으로 분리(3단분리/서재분리) 복도, 홀, 다른기능의 방을 통해서 연계	2 (4%)	1 (1%)	1 (1%)	4 (2%)
H	공간적으로 분리(수직분리) 재단을 통해서 연계(SKIP FLOOR)	6 (13%)	14 (21%)	18 (24%)	38 (20%)

※ 연속적 형식의 계단실 (2-3단 정도) 레벨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분리(를) 복도를 포함하여 단일 공간으로 취급.
※ ○ = 거실, ⊕ = 안방, ⊙ = 홀과 복도를 제외한 공간, ⊞ = 특, 복도

4.3. 안방의 공간적 분화

다음으로서는 주택에서 안방이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살펴본다<표 4 참조>. 안방은 주택에서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의 방으로서가 아니고 주로 주택 1층부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으로서 사적 생활공간의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주택의 경우는 안방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안방이 별도의 공간적인 분화없이 단일공간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일반적인 공간구성법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주택의 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에서 안방을 단일의 용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주택이 지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안방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단일용도로서의 안방의 구성은 8,90년대로 가면서 점차 줄어들어가는 것이다. 단일·복합용도로서의 안방의 형식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공간구성의 양상은 안방에 욕실이 있고 동시에 욕실 전면에 소위 드레스룸(dress room)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전체 사례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을 공간구성의 위계에서 본다면 방-드레스룸-욕실로 구성되는 공간구성법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7-80년대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일반화되는 공간구성이 안방-침실-드레스룸-욕실의 공간구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단일공간이던 안방이 안방과 침실이라는 두가지의 기능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수용하는 고도의 공간분화의 현상이 만만치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분리와 연계의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행한 공간의 연계와 분리의 분석은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와 안방-거실의 연계관계, 그리고 안방의 공간적 분화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나타난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 자가주택의 공간구성은 '공간의 통합과 연계'라는 개념에서 '공간의 분절과 분리'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주택내 주요 공간의 분리와 연계의 방식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거실-식당-부엌의 연계관계에 있어서는, 70년대에는 거실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고 식당과 부엌이 벽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데 반하여, 8-90년대에는 거실과 식당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대신 식당과 부엌을 공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90년대로 진입하면서 거실과 식당은 복도 등을 통하여 완전하게 공간적으로 구분시키는 방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실과 안방의 연계관계에 있어서는, 70년대에는 거실-안방이 공간적으로 직접 연계되는 인접관계가 일반화되었으나, 8-90년대로 전이하면서 홀이나 복도를 경유해서 두 공간이 분리되는 방식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안방과 거실이 1-2층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증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에 의하면, 안방 또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현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0년대에는 안방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계획되어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80년대이후에는 안방은 방-드레스룸-욕실로 분화되는 양상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또한 안방-침실-드레스룸-욕실의 공간구성이 등장하면서 안방은 방과 전용침실이라는 두가지의 기능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수용하는 고도의 공간분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공간의 분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변화의 경향과 깊

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된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공간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해결하던 주택에의 접근방식이 8,90년대로 들어서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재결합하는 양상으로 바뀌는 경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소위 '채나눔'의 방식을 통해서 두세 개로 나뉘어진 공간의 덩어리는 복도나 계단과 같은 매개체에 의해서 엮어지는 모습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90년대의 주택들은 내부에서 최소한의 동선을 통한 공간의 연계성 또는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간의 선적(線的)인 흐름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인용, 한국 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2. 김능현, 70년대이후 서울시 중산층 단독주택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6.
3.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선서 67, 1993, 열화당.
4. 이경희외, 住居學 概說, 문운당, 1993
5. 임장복,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9.
6. 최혜진, 한국 건축가에 의한 단독주택 형태구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7. 東孝光, 都市住居의空間構成, SD選書 No.199, 鹿島出版會, 1986.
8. 越後島研, 形態的 想像力の展開: 戰後 住宅作品の系譜, 建築文化, 1985, 12
9. Cloughon, A., Typology and Design Method,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IT Press: Cambridge, Mass., 1987
10. Hillier, Bill & J.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84.
11. Mess, P. K., Element of Architecture, New York: Reinhold van Nostrand, 1993.
12. Moore, Gary T. Emerging Methods in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The MIT Press, 1973.
13.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1969.
14. Steadman, J. P. Architectural Morphology, London, Pion Limited, 1983
15. G. Broadbent, Design in Architecture(이광노 외 譯, 건축디자인 방법론, 기문당, 1982)
16. Ralf, P. Weber, On the Structure and Order of Perceived Architectural Space: Towards a Psychologically Based Aesthetics of Architecture, Intrim Report No.34, Center for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1982,
17. F. D. K. Ching, Architecture: Form, Space & Order (건축의 형태·공간, 도서출판 彰國社, 1985).

<접수 : 1999. 2. 1>